대한수의사회지 제20권 제7호
J. Korean Vet. Med. Assoc.
Vol. 20, No. 7, July, 1984

권두단상

수의사의 입(口)

鄭 昌 國*

입(口)은 말의 옹달샘이다.

입에서 表出되는 말은 느낌과 생각의 전달이며, 人格과 德性의 表出이기도 하다.

입을 거쳐 표현되는 말은 듣는 이를 감동시킬수도 있고, 순종하게도 할수있고, 울릴수도, 웃길수도, 때론 격분시킬 수도 있다. 같은 성질의 문제를 놓고 같은 말을 하는데에도 부드러운 억양으로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억양을 높히고 口角飛泡 식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면서 열띠게 이야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언짢음을 느끼게 하는 이들도 있다.

교양인은 입을 통한 말의 표현이 듣는 이에게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口語는 자못 마음 먹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対人生活에서 간혹 오해나 의혹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입을 거쳐 나오는 말은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와전되어서 有形·無形의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口舌数 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근대어로는 말의 公害라고도 할수 있겠다.

君子는 中庸을 貴히 여긴다는 말이 있다. 中庸은 過大와 過小의 両極의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德論의 중심개념이며, 동양철학에서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過不及이 없는 평범한 곳에 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말을 하는데 있어서도 中庸이 필요하다. 그러나 萬人에게 불필요하게 강한 喜·怒의 감정을 솟구치게 하지 않도록 또 어느 한쪽의 감정을 격하게 하지 않도록 말의 中庸을 지킨다는 일은 그지없이 어려운 것이다.

多辯家는 경망스럽게도 느껴지는 한편 지나친 緘口無言은 우둔하기 까지도 여겨진다.

男児一言重千金이라는 격언이 있다. 남아의 입에서 발한 말 한마디는 千金과 같이 무겁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격언은 특히 개업하는 수의사가 명심해야 할 깊은 뜻을 내포한다고생각되어서 그저 마음에 쏙 든다. 그도 그럴것이 수의사의 말 한마디로 몇 백萬원의 소는 生·死의 갈림길에 서게될 것이고, 수의사의 말한마디로 축주는 삽시간에 거액의 損·益이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일선에서 일하는 임상가의 입에서 表出되는 진중하고도 진실된 말은 축주의 존경과 신뢰를 살 수 있을 것이고, 경망스레 나불거리는 唇間에서 튀어나오는 가볍고도 표리부동한 말은 스스로의 위신과 인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対人관계를 중히 여길줄 아는 임상수의사는 하고저 하는 말을 미리 마음 깊히 음미 정돈한 다음 비로소 입에 옮긴다 이런 진실된 말이야 말로 '鶴의 一声'일 것이다.

중심없는 말을 함부로 이리 저리 지꺼리는 것을 横説竪説이라고 한다.

임상수의사의 절대 禁忌는 진료상의 横説竪説이다 임상수의사의 진실성없는 진료상의 横説竪説은 간혹 법적문제에 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한번 뱉어놓은 말을 그후 다음기회에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것을 食言이라고 한다.

급한 처지에 일시모면의 방책으로 食言할 수도 있으려니와 그 予後는 不良해서 口禍는 면치못할 것이다. 어느 교수 방에서 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이라고 쓰인 족자가 벽에 걸린것을 본적이 있다. 직역하면 입은 禍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門이 될수도 있고 가볍게 놀리는 혀는 스스로를 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칼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뜻이 될것이다. 매우 뜻 깊고 무서운 느낌마저도 든다.

口習은 자기 수양으로 어느 정도는 교정될 수 있겠으나 다급하면 天性이 노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수양과 인내로 口德을 쌓아서 분별없는 暴言을 억제한다면 口禍를 면할수도 있을 것이다.

임상수의사는 일상생활에서 男児一言重千金 이라는 訓을 마음 깊이 새겨 座右銘으로 삼았으면 한다.

※ 서울大学校 獣医科大学